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창세기28:16-17)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 학교, 가정, 사업, 만남, 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위기, 갈등,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제목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 지금 내가 있는 곳

*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저녁이 되어 길바닥에서 돌베개하고 노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1) 하나님은 어디에?

① 바로 여기에(창28:16)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노숙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을 하며 고백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바로 거기에, 내가 가는 직장, 사업, 학교, 가정, 만남,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양 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 이곳은 어디?

① 하나님의 집(창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냄새나는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체험을 한 후에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② 하늘의 문, 내가 있는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기에 전능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 미래의 미션을 주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 겔48:35, 여호와 삼마 =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는 열두지파 이름을 따라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만들어 열 두문을 만들고, 그 위에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출입 할 때마다 여호와 삼마(하나님의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힘을 얻고, 늘 임마누엘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집, 사업장 “여호와삼마”라는 이름을 써서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배하는 곳에(행16:23-26)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고발당하여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힘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더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감옥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 ① 찬양 ② 기도 ③ 예배

(2) 전도하는 곳(마10:40-42)

* 마10: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40)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41)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4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들고 현장에 가는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 의인, 전도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3) 내가 있는 모든 곳에

① 창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현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 노예라는 밑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② 시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1),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③ 마8:14-15,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치유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④ 왕상19:1-8,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되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사를 보내사 먹을 공급하시며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⑤ 눅19:1-10,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⑥ 고후11:23-30,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가고, 매 맞고, 돌 맞고, 파선,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협, 자지 못하고, 주리고, 굶고, 춥고, 헐벗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론) 하세권(역세권)

(1) 신11:8-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12)

(2) 창28:16-17,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3)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